

해외시장 개척 강화의 2010년



박 상 도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1. 개 황

2010년 유가공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가공업계 직권조사와 정부의 FTA 대책의 일환으로 낙농종합대책 추진, 3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유지방 위주 원유가격산정체계를 소비자의 저지방 선호, 지방기피 등 시대적 흐름 반영과, 젖소의 경제수명 연장, 산유량 증가를 통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단백질 도입을 위한 원유가격 산정체계개선 방안 추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중국 유제품 수출 전면중단과 수출재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전면개정,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유가공업계 태국식품박람회 참가, 구제역발생과 여름철 폭서로 인한 우유의 수급 불안정 등 많은 이슈와 현안이 있었다.

2010년 국내 유가공업계 결산을 논하면 2008년을 2009년과 연속선상에서 다뤄야 할 것 같다.

2008년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국제 원유가격 폭등, 환율 급등으로 생산농가의 원유 생산비뿐만 아니라 수입의존도가 높은 각종 원재료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엄청난 원가부담으로 관련제품의 가격조정과, 특히 생산농가의 원유생산비 인상에 따른 20.5% 원유가격 인상조정은 그대로 유제품 원가에 반영되어 제품가격이 인상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과 관련



하여 유가공협회를 포함한 전 유업체(12개사)가 직권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는 2010년 가장 큰 핫 이슈로 생각된다.

가격인상은 생산비 인상에 따른 낙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우여곡절 끝에 정부, 생산자,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합의를 통해,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자율적 제품가격 조정은 이미 '08년도 하반기부터 반영되어 조정 되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는 '09년 9월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2010년에도 계속 진행되어, 현재 조사결과에 대한 소명과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낙농진흥회 총회 회원인 농협중앙회, 낙농육우협회, 한국유가공협회 뿐만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진흥회 이사 연명으로 낙농산업과 유가공산업은 상호 연계산업이어서 어느 한쪽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서로가 어려워지며 최종적으로는 생산농가의 어려움으로 귀결되므로, 국내 낙농산업과 유가공산업이 더 이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 전원의 연명으로 건의한 바 있다.

특히 낙농육우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낙농농민 생존권말살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우유시장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농식품부는 잘못된 정책결정을 바로잡는데 나서라는 압박을 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2. 정부 낙농종합대책 추진

정부는 FTA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3월 5일 생산자단체, 유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낙농종합대책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 발표하였다. 그 중 주요한 추진 과제는 크게 4가지 항목을 들 수 있겠다.

첫째, 수급관리 측면에서 장기적인 국내 우유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계획생산제(전국단위쿼터제)를 추진하고,

둘째,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개방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새로운 우유의 수요를 창출하고,

셋째, 우유·유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 마련,

넷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집유를 일원화하면서 원유거래체계와 쿼터관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낙농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가공업계에서도 서로간의 이견이 많아 조율이 쉽지 않다. 전문가의 자문과 정부,

학계, 유업계, 생산자, 농협, 낙농진흥회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무팀을 구성하여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 협의회를 무려 14회에 걸쳐 실시하여, 낙농종합대책 시행을 위한 쟁점사항을 해소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한 바 있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목장별 연간쿼터 총량제 등으로 이견이 많은 부분에서 발생 하고 있다.

3.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낙농농가에게 지급되고 있는 원유가격체계는 1973년 이전까지는 별도의 유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가 없이 단순하게 양위주로 원유가격을 지불하다가, 1973년 1월부터 일부 유지방 차등가격제를 실시하였고, 1977년부터 전국적으로 유지방 차등가격제를 실시하여 현재의 원유가격 산정체계의 효시가 되었다.

현재의 원유가격체계에 위생등급제(세균수, 체세포수)를 도입한 것은 1993년 6월부터이며,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위생등급을 조정한 바 있다. 30년 이상을 유지방 위주로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유지해오면서 그동안 현행 유지방위주의 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은 많았지만, 원유가격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였다.

시대적 흐름이 이제는 웰빙, 지방기피 현상, 저지방우유 판매호조 등 소비자의 요구도 저지방을 선호하는 추세로 선회하면서 유지방 위주 가격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농가측면에서도 젖소의 경제수명 연장, 농가 소득증대 등 많은 부수적 효과를 위해, 유지방 가격을 낮추면서 유단백질을 가격산정체계에 도입하는 것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된바 있다.

단백질 도입의 필요성은 치즈의 수율증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가공업계에서 이미 2000년부터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중국의 멜라민파동으로 인하여 원유가격에 단백질 도입시, 멜라민을 우려하는 부정적 여론도 있었지만, 2008년 2월 19일 낙농진흥회 제1차 정기 이사회에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기로 의결되었다.

그 동안의 경과 과정에서 2차례 소위원회와 10차례 실무회의 끝에 연구용역을 통한 유대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가 단장으로 구성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37년 만에 총유대가 “±0”의 원칙 하에서 원유가격 산정체계에 유지방 하향조정과 유단백질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많은 어려운 경과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학계, 소비자, 유업계,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가격 산정 체계 개선(안)과 시행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생산자와 유업체간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4. 원유생산과 소비

최근의 국내 원유 생산량은 '08년 2,138천 톤, '09년 2,109천 톤, 2010년은 아직 연도 중이므로 현재 추세로 전망하면 약 2,080천 톤으로 전년보다 약 1.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 보면 '08년도는 수출을 포함한 물량으로 3,034천 톤, '09년 3,110천 톤, 2010년도는 추정치로 3,100천 톤으로 예상된다. 국내 생산량 보다 소비가 월등히 많은 것은 수입이 자유화 되어, 국제가격경쟁력이 없는 국내 유가공품(치즈, 크림, 분유류 등) 대부분이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순수한 국내 원유의 수급은 수요보다, 생산이 부족한 상태이다. 올해 초 일부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젖소 도태와 긴 폭서기로 인한 젖소의 스트레스로 원유생산량 감소와 회복기간 지연, 9월 태풍 곤파스의 영향과 계속되는 사육농가 감소가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수급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내년에도 우유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낙농기반을 살펴보면, 2000년 13,348가구 → 2003년 10,514가구 → 2006년 8,260가구 → 2009년 6,767가구 → 2010년 6,400가구로 10년 사이 무려 52%나 감소되었다. 이런 추세로 이어지면, 결국 국내 낙농기반 약화가 우려되며, 낙농뿐만 아니라 유가공 산업에도 장기적으로는 수급에 큰 문제가 우려된다. 정부의 낙농기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책과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5. 해외시장진출 확대

유가공업계는 정체를 맞고 있는 국내 우유소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의 취향분석과, 해외 유제품 트렌드 분석, 다양한 신제품 개발-출시, 기능성 유제품 개발 확대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개척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유가공협회에서는 이러한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06년

북경 낙농박람회, '07년 베트남 국제식품박람회, '08년 상해 국제식품박람회, '09년 북경 국제식품박람회, 올해엔 동남아시아 시장 해외진출을 목표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동남아시아 4대 식품박람회 중 하나인 태국 방콕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를 지원하였다. 참가사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유가공산업관(유가공협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도 같이 동참하였다.

이번 방콕 국제식품박람회를 통하여 참가사의 해외 지명도를 높이고 현지 바이어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국유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박람회의 무형의 성과로는 주최사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온 바이어들에게 한국 유제품의 다양성과 품질 우수성, 안전성이 국제적 수준임을 인식하게 해준 것이다.

또한 7건 422만 불의 수출 가능 상담을 함으로써, 향후 태국시장 뿐만 아니라 인접국의 수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장과 유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참관단이 태국의 유명 유통점인 엠포리엄 백화점과 태국 유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태국 유통업체와 유가공업체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①

① 2009 중국 북경 국제식품박람회의 한국유가공협회 부스
② 2010 태국 방콕 국제식품박람회 한국 참관단 대표
③ 2010 태국 방콕 국제식품박람회 한국관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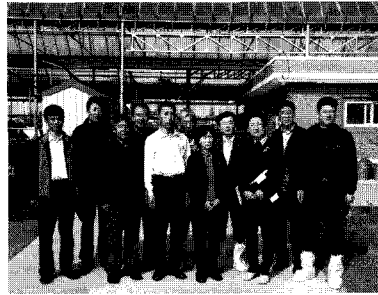


③



6. 결 언

유가공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신제품 개발과 원가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하여 성장해 왔지만, 매년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노력을 해왔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현지심사

특히 국내 유제품의 해외 지명도 제고와 수출확대를 지원을 위해, 유가공협회를 중심으로 방콕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뿐만 아니라 유업체의 해외 수출팀을 중심으로 동구권 수출시장 확대 등 해외 시장개척에 힘쓰고 있다.

내수시장과 밀접한 유제품 소비는 2010년에 경기가 예상 외로 빠른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당초 소비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우유소비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정부의 강력한 수출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였지만, 쉽지 않은 한해였다.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 원유를 갖고 수출을 확대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중국으로 시유의 수출확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2012년 100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2010년은 식품의 안전과 고품질의 제품개발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갈수록 눈높이가 높아만 가는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회원사의 협조를 얻어 협회가 소비자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유가공업체 현장을 직접 보여줘,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유가공업계가 그만큼 위생과 안전에 자신 있음을 보여주면서 소비자와의 협력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한 해였다.

앞으로는 국내 낙농 및 유가공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해선 소비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유가공업계는 이러한 취지에서 생산현장을 개방하여 보여주고 있다. 낙농육우협회에서도 연속 사업으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통한 우수목장 선정에 정부, 학계, 유관기관, 유가공협회 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 대표까지 포함시켜 목장 현장을 심사 평가토록 한 방침은, 소비자 단체에게 우리나라 목장현실과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깨끗한 목장을 통한 유질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감으로써 국내 우유 생산 목장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된 한해라고 생각된다. ☺